



이미지 스톡 라이브러리, 포토리아

Fotolia(포토리아)

대표이사 Oleg Tscheltzoff(올레그 테체르조프)

설립연도 2004년(한국 서비스 시작은 2011년)

주 소 41 East 11th Street, 11th Floor,
New York, NY 10003, USA

U R L www.fotolia.co.kr

임혜진 포토리아 한국 사업 운영 매니저는 “포토리아는 해가 지지 않는, 공전 중인 행성”이라고 이야기한다. 포토리아 서비스와 직원은 아시아부터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볼 꺼질 틈이 없다. 매일 아침을 알리며 새롭게 뜨는 태양처럼 포토리아 또한 항상 공전 중이라고. 빛을 밝히며 세계 곳곳에서 열정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그들이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궁금하다.

글 강경림 기자 lim@websmedia.co.kr



디지털 프로젝트 이미지 웨이

광고 및 디자인 회사, 웹 에이전시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대학생들도 차별화를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다.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던 시기를 지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현실. 특히, 많은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홍보, 디자인 등) 수요가 높아지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고정되었고 이미지는 디지털화로 복제가 간단해 불법 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용자 역시 비

상업적 용도로는 관찮을 거란 생각에 불법으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혹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불법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이미지 저작권의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 포토리아가 대안을 제시한다.

포토리아는 2004년에 설립한 이미지 스톡 라이브러리로, 사진작가와 디자이너 본인이 작품을 판매하고 수요자는 원하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고품질 이미지를 누구나 제약 없이 판매하고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진, 벡터 일러스트, 비디오 등과 같은 콘텐츠 시장 민주화에 힘쓰고

있다. 기존 이미지 시장은 제한된 수량과 높은 가격으로 다양한 디자인 작업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많은 사진작가와 디자이너가 폐쇄적인 시장에서 판매 출구를 찾지 못해 좌절했다. 하지만 포토리아가 사진작가와 디자이너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고품질 이미지를 기존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본사는 미국 뉴욕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15개 지역에, 12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서비스 중이다.

fotoliaLAB

stock. photo. art.



전 세계 직원들과 함께한 모로코 여행



6월 텐 컬렉션 포스터

Meet, Share, Have Fun!

지난 3월 말, 전 세계 포토리아 직원이 북아프

리카 모로코의 메라케쉬(Morocco, Marrakech)에 모였다. 그들은 세계 15개 지역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온라인 음성, 영상 통화 등으로 대화해 왔다. 직원 채용 인터뷰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만남과 다양한 문화 교환, 공유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행사는 세계 각국 오피스 간 교류를 촉진하고 포토리아의 인터내셔널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포토리안(Fotolian)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기도 하다.

포토리아 직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로열티다. 포토리아는 인터내셔널 기업으로 그 어느 회사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는 필수다.

이미지 기행

포토리아는 1천 7백만 건 이상의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와 3백만 명 이상 사용자를 바탕으로 매초 바쁘게 이미지를 판매 중이다. 이러한 성공 요인은

끊임없는 이노베이션 덕분이라고. 지금도 꾸준히 여러 방면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비즈니스, 구매자, 판매자 입장에서 신경쓰고 있다. 웹사이트 기능 개선은 물론 API, 포토리아 데스크톱 등을 개발하며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데비앙아트 등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다. 구매자에게는 텐 컬렉션(TEN Collection, www.fotolia.co.kr/ten)을 통해 세계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 작품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와 디자인 업계 발전을 위해 포토샵 레이어 파일 및 작품 제작 동영상은 무료로 제공한다. 매월 10일(단 10일이 주말인 경우, 10일 이전 금요일이 작품 공개 및 내려받기 가능. 6월의 경우, 6월 8일이 텐 컬렉션 데이) 오전 10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판매자에게는 포토리아에서 판매 중인 이미지를 포토리아 전시공간 포토리아랩(fotoliaLAB)에서 전시(기획 전시, 정해진 테마로 일정 기간 전시)함으로써 콘텐츠 작가(콘텐츠 판매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좋은 작품을 대중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현재 'Me, Myself and I'라는 제목으로 콘텐츠 작가 자화상 작품을 전시 중이다. ■

MINI INTERVIEW 포토리아 한국 사업 운영 임혜진 매니저



w.e.b. 포토리아에서만 특별 판매 중인 작품이 있는가.

포토리아는 유명 디자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데비앙아트 컬렉션(dA Collection, www.fotolia.co.kr/dacollection)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다.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포토리아 회원과 공유하고, 쉽게 아트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의 산물이다.

w.e.b. 한국에도 뛰어난 사진작가와 디자이너가 많다. 이들도 포토리아를 이용할 수 있나.

한국 포토리아 웹사이트에 본인의 작품을 등록만 하면 간단히 전 세계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

다. 많은 한국 작가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한국 콘텐츠 작가가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을 떨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포토리아 콘텐츠 작가에 대한 상세 내용은 www.fotolia.co.kr/kor-contributors, www.fotolia.co.kr/Info/Contributors에서 확인 가능하다.

w.e.b. 앞으로의 계획은.

포토리아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 언어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국가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Wilog'라는 로고 제작 서비스도 인수했다. 그리고 포토리아를 통한 원스톱 디자인 쇼핑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